

2015 / 10 / 20 (TUE)

인터넷 / 소프트웨어 / 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업종별 Comment

전일 국내 인터넷/SW 섹터는 강보합세. 중국의 3Q GDP 성장률이 6.9%(YoY)로 예상치(6.7%)상회한 가운데 강보합 마감.

IT서비스 업종과 게임주는 소폭 상승한 반면 인터넷과 소프트웨어는 소폭 하락.

수급측면에서는 기관의 매수세로 사람인에 이치알, 파티게임즈, 위메이드 강세. 반면 기관의 매도세로 KT뮤직 약세.

종목별로는 자사주 처분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며 조이시티가 4.1% 상승 마감.

국내 인터넷/소프트웨어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296.37	0.0%	-13.2%	-462 억	384 억
(코) 인터넷	19,435.52	1.2%	1.9%	16 억	-27 억
(코) IT S/W&SVC	2,222.98	0.3%	11.2%	18 억	-136 억
(코) 소프트웨어	324.95	-0.6%	32.5%	12 억	-36 억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584,000	-0.5%	-18.0%	-2 억	-6 억
카카오	115,400	0.3%	-6.6%	21 억	-31 억
한국사이버결제	30,950	-1.6%	15.9%	0 억	-2 억
KG이니시스	17,950	-2.7%	0.3%	-2 억	-5 억
KG모빌리언스	15,400	0.7%	5.8%	1 억	0 억
사람인에이치알	22,750	7.1%	103.1%	7 억	2 억
KTH	9,070	-2.1%	18.6%	0 억	-1 억
아프리카TV	28,700	-2.9%	7.3%	-2 억	-8 억
SK컴즈	7,600	1.7%	14.3%	2 억	-
KT뮤직	5,360	-4.1%	-0.6%	-1 억	-8 억
다날	9,750	-1.4%	20.4%	-1 억	-
에스24	11,700	0.0%	67.9%	1 억	4 억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97,500	0.8%	1.4%	21 억	80 억
SK	270,000	0.4%	26.5%	-46 억	-38 억
다우기술	26,550	0.4%	122.2%	3 억	8 억
포스코 ICT	5,430	0.9%	2.5%	2 억	0 억
신세계 I&C	128,000	-1.5%	14.3%	4 억	-8 억
동부	6,050	-1.9%	141.0%	0 억	-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194,000	-1.3%	6.6%	-265 억	18 억
컴투스	113,400	-0.2%	-5.9%	-1 억	-4 억
NHN엔터테인먼트	58,000	1.2%	-31.5%	9 억	-9 억
웹젠	32,150	0.8%	10.7%	-3 억	0 억
위메이드	47,400	1.2%	25.4%	-6 억	8 억
선데이토즈	13,500	-0.7%	-21.5%	-3 억	-
액토즈소프트	41,350	4.9%	23.4%	3 억	-7 억
게임빌	71,200	1.1%	-41.0%	8 억	0 억
네오위즈게임즈	17,700	-0.6%	-22.2%	0 억	0 억
넥슨지티	13,150	0.4%	3.1%	0 억	0 억
데브시스템즈	31,550	0.0%	-33.9%	0 억	0 억
조이시티	28,150	4.1%	39.4%	-9 억	-72 억
파티게임즈	47,050	6.0%	80.6%	-2 억	9 억
조이맥스	24,250	1.7%	-11.2%	-2 억	1 억
한빛소프트	6,870	1.0%	18.7%	1 억	-
와이디온라인	8,860	-1.0%	91.8%	1 억	-

해외 Internet/Software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47.99	0.2%	0.7%
MSCI Internet	181.49	0.6%	18.8%
MSCI IT Services	125.25	0.4%	6.4%
MSCI Software	169.10	-0.1%	3.4%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699.95	0.7%	31.9%
Facebook	98.47	1.0%	26.2%
Tencent	147.10	0.3%	30.8%
Baidu	154.68	2.4%	-32.1%
Yahoo	33.50	0.4%	-33.7%
LinkedIn	197.41	-0.2%	-14.1%
Twitter	30.91	-0.8%	-13.8%
Weibo	15.79	1.4%	10.9%
SINA	45.88	-0.2%	22.6%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49.22	-0.8%	-7.0%
TCS	2,488.75	0.6%	-2.7%
Accenture	103.10	0.1%	15.4%
HP	28.98	0.4%	-27.8%
Infosys	1,111.95	1.6%	12.7%
Wipro	577.55	0.0%	4.0%
NTT Data	5,890	1.4%	30.5%
Fujitsu	573.30	-0.8%	-11.0%
CSC	64.39	0.1%	2.1%

Games	close	1D	YTD
Nintendo	23,270	1.9%	84.6%
EA	72.29	0.8%	53.7%
Blizzard	33.75	-1.2%	67.5%
NEXON	1,619	-0.3%	43.9%
NAMCO	2,974	0.3%	16.0%
King	14.66	-0.8%	-4.6%
Konami	2,744	-1.0%	23.6%
Square Enix	3,260	0.9%	30.0%
GungHo	369	-2.4%	-16.3%
DeNA	2,336	1.6%	61.5%
Sega	1,250	-1.5%	-19.7%
Take-Two	31.38	-0.7%	12.0%
Zynga	2.44	-0.8%	-8.3%
Ubisoft	24.91	-0.1%	64.2%
Gree	588	-1.7%	-18.8%
Changyou	18.41	-1.0%	-32.7%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삼성에스디에	21 억	엔씨소프트	-265 억
카카오	21 억	SK	-46 억
한국정보인증	12 억	처음앤씨	-16 억
NHN엔터	9 억	조이시티	-9 억
게임빌	8 억	위메이드	-6 억
사람인에이치알	7 억	코나아이	-6 억
이니텍	7 억	민앤지	-5 억
더존비즈온	4 억	유비케어	-4 억
신세계 I&C	4 억	캔들미디어	-3 억
한국전자인증	4 억	비트컴퓨터	-3 억
한글과컴퓨터	4 억	신세계 I&C	-3 억
오픈베이스	3 억	브리지텍	-3 억
큐로컴	3 억	웹젠	-3 억
액토즈소프트	3 억	조이맥스	-2 억
라운시큐어	3 억	파티게임즈	-2 억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삼성에스디에	80 억	조이시티	-72 억
엔씨소프트	18 억	SK	-38 억
파티게임즈	9 억	카카오	-31 억
위메이드	8 억	NHN엔터	-9 억
다우기술	8 억	아프리카TV	-8 억
에스24	4 억	한글과컴퓨터	-8 억
사람인에이치알	2 억	신세계 I&C	-8 억
골프존	2 억	KT뮤직	-8 억
이상네트웍스	1 억	액토즈소프트	-7 억
슈프리마	1 억	NAVER	-6 억
조이맥스	1 억	KG이니시스	-5 억
필링크	0 억	컴투스	-4 억
디오텍	0 억	비트컴퓨터	-3 억
크레듀	0 억	한국사이버결제	-2 억
라운시큐어	0 억	한국정보인증	-2 억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코나아이	40,200	-1.2%	19.3%	-6 억	-1 억
더존비즈온	19,900	0.5%	114.0%	4 억	0 억
한글과컴퓨터	21,750	0.2%	7.7%	4 억	-8 억
골프존	99,700	-3.0%	294.9%	2 억	2 억
안랩	43,300	0.0%	20.3%	-1 억	0 억
한국정보인증	15,000	-0.3%	331.7%	12 억	-2 억
슈프리마	22,650	2.5%	-11.0%	1 억	1 억
갤럭시아컴즈	6,080	0.2%	124.4%	0 억	-
지트리비앤티	10,500	1.0%	204.3%	0 억	-
MDS테크	24,150	1.0%	16.7%	0 억	0 억
오상자이엘	11,750	-1.7%	-11.7%	0 억	-
인피니트헬스케어	10,600	0.0%	46.4%	1 억	-
케이사인	3,100	-2.2%	26.0%	0 억	0 억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47.62	0.2%	2.5%
Oracle	36.87	-1.3%	-18.0%
SAP	74.76	-0.8%	7.3%
EMC	27.72	-0.2%	-6.8%
Salesforce	77.93	-1.1%	31.4%
Adobe	88.40	-0.3%	21.6%
Vmware	69.22	-0.6%	-16.1%
Intuit	94.08	0.5%	2.1%
Symantec	20.76	0.2%	-19.1%
CA	28.48	-1.5%	-6.5%
Citrix	75.87	0.5%	18.9%
Autodesk	52.44	0.8%	-12.7%
Synopsys	48.40	-0.1%	11.3%

인터넷 Internet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Industry		최근이슈

News & Issue

김무성 대표 "포털 뉴스편집 방향 개선" 평가, 업계는 자율규제 주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의 미래를 논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포털의 뉴스편집 방향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문제제기(포털의 편향적 뉴스편집) 이후 포털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바뀌어가고 있고 개선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9월 16일 포털 뉴스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포털 뉴스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토론회에서 "포털이 '악마의 편집'을 통해 진실을 왜곡하거나 과장된 기사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견주어 보면 포털을 목소리의 톤은 작아졌다.

하지만 김 대표는 "지난 국감에서 재벌 총수는 (증인으로) 불러냈지만 포털 사장은 불러내지 못했다"며 "포털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가 포털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여전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포털 뉴스편집에 대해 정치권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컨대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제목과 사진을 보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관련 기사는 모두 언론사가 작성한다. 더구나 포털은 언론사가 전송한 기사의 제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편집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네이버는 글자 수가 넘칠 경우 말줄임표(...)를 넣고 있어 인위적인 편집이 이뤄지지 않는다. 카카오의 경우 다음뉴스가 제목을 변경하는 경우는 글자 수 축소가 필요한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네이버 뉴스편집에 대한 자문과 검증 활동을 하는 뉴스편집자문위원회(자문위)에 따르면 '뉴스편향 여부'에 대해 사실상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자문위 위원은 여당과 야당에서 추천받은 인사와 언론학계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네이버는 뉴스편집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자문위 산하에 '실시간 편집 모니터링단'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대기업인 포털이 그에 걸맞은 책임과 행동을 취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언론학계도 대체로 비슷한 의견을 냈다. 포털에 대해 이전보다 더 강화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과 함께 업계의 자율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게임 Gam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조이시티	4.1%	최근이슈

News & Issue

조이시티, 자사주 처분 소식에 강세

조이시티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자사주 처분에 나섰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조이시티는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자사주 59,032주를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주당 처분가총액은 13.93억원이며, 주당 처분가격은 23,600원이다

한편 최근 조이시티는 모바일 보드게임 '주사위의 신'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전세계 출시했다. 이 게임은 '모두의 마블'과 유사한 형태의 보드게임으로 모든 국가의 이용자들이 하나의 서버 안에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원월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시간 매칭 시스템과 다국어 지원, 이모티콘 도입 등 국가간 언어문화적 장벽을 낮춰 전 세계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탄탄한 스토리와 매력적인 외형의 캐릭터, 화려한 주사위 효과로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각 국가별로 잘 알려진 현지 성우들을 기용해 듣는 재미까지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업데이트 효과 쓸쓸하네, 뮤오리진·리니지 상승세

최근 모바일 액션게임(RPG) '뮤오리진'과 온라인게임(MMORPG) '리니지'의 인기 상승세가 눈에 띈다. 두 게임 모두 최근 대규모 업데이트가 적용됐다.

19일 구글플레이 인기차트에 따르면 뮤오리진은 최고매출 2위까지 올랐다. 최근 들어 4위를 유지하다가 2계단 상승했다. 이에 대해 웹젠 측은 "이번에 업데이트된 PvP(대전) 콘텐츠의 인기가 좋다"고 설명했다.

앞서 웹젠은 최대 200명 실시간 동시접속 길드공성전을 업데이트한 뒤 구글플레이 매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에도 실시간 PvP에 이용자들이 상당한 호응을 보였다.

뮤오리진 사례에서도 입증됐듯이 최근 모바일 액션게임(RPG) 시장 트렌드는 '실시간 PvP'다. 최근 모바일 RPG들은 기본적으로 실시간 PvP 콘텐츠를 갖추고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기존 게임들은 부쩍 PvP 콘텐츠를 강화하는 추세다.

국내 대표적 장수 온라인게임인 '리니지'도 대규모 업데이트를 발판으로 PC방 점유율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 18일 게임트릭스 기준 전체 점유율 4위(3.09%)다. 보통 6~8위를 유지하다 오랜만에 4위까지 올랐다. 이번 업데이트 이후 리니지 내 액티브 유저 등의 상승세가 관측됐다.

지난 14일, 리니지엔 무려 7년 만에 정규 에피소드가 붙는 등 대규모 변화가 있었다. 숙련자와 초보자를 동시에 아우르는 다양한 개선이 적용된 것이 이번 업데이트의 특징이다.

엔씨소프트는 경험치 보상 확대로 90레벨대 이용자 출현을 전망하는 한편 게임 플레이 동선 등의 개선으로 초반 콘텐츠 진입 장벽도 낮췄다. 이번엔 신규·휴면 이용자 유치를 위한 무료 이용권(7일 15시간)도 풀었다. 그동안 리니지 무료 이용권은 이벤트로도 거의 등장한 적이 없다. 파격적인 이벤트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0월 20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10월 2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10월 2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